

새 천년과 한국여성

박영숙 (사) 사랑의 친구들 총재

I.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흥분과 기대속에 새천년과 새세기를 맞이할지로 벌써 발걸음
하루도 지장이 지났다. 동자들에 따르면 2011년을 새천년이라는 주장까지
하는데 아직껏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20세기의 정황을 가늠함에 21세기를 미리 알아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의 말과 같아 내세로 인류가 피겨로
현대의 역사상 처음으로 세번의 일대변을 경험해내고 있음에도 의심을
부릴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100년의 역사는 갈등과 대립, 지배와 타락, 경쟁과 소외 그리고
독재의 우리와 주도한 시대로서 인류의 리얼리티, 참사의 양과 억압, 생명권
경쟁 및 물질만능의 왜곡된 세상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인류의 타락이 예고
되고 있다.

새천년, 새세기는 경쟁과 자존, 공의의 근대적 주도권을 경쟁, 평등,
평화의 세상이 만들어져야 한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필라리멘으로 역사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계는 새로운 100년을 ① 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로 세계는 국경이
없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지구정치, 지구경제, 지구환경의 세가지로 ② 국가
주권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지방분권과 국제기구,
경제기구, 원조단체 등의 다국적조직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③ 20세기가
경제의 위기, 남북(강제)의 위기였지만 21세기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환경의 위기, 여성(사회적 약자)의 세기로 전망되고 있다.

기대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필라리멘의 전환은 준비하고 이루어지기 위한 수고를 안겨야 함을 깨닫고
현실화 된다. 때로는 비극을 겪는 고통이 때론기로 한다.

위기를 돌파하는 에너지는 사회중심부에서 아니라 주변부에서 나오는
것이 인류역사의 법칙이라고 전제하면서 어떻게든 앞장서서 지금까지
주변부에 있던 여성들이 대안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귀결
이라고 하는 것이 동의한다.

인간에 대한 연민과 이 단상에서

한국의 세기, 여성의 세기는 여성이 이끄러가야 한다.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지적해 두는점은 이 여성의 힘이란 생육복족인 것이 아닌 남성을 부양하는 거대한 것이니고 여성들의 힘을 의미한다. 이 힘을 남성이 생각할 줄 알고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세상을 지리 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1. 실질적으로 이 힘은 현재 여성이란 인간집단이 보다 힘이 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으로 인간 > 여성들이 한껏 발휘되었을 때 우리가 근한 세상이 될 것이다.

영국적인 남북평화회의 성공으로 남북의 화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II 한국 여성의 한국성

지난 9월 5일부터 1주간 지리

<21세기, 이제는 여성!> 이것은 우리나라 대흥경장독 여성취향이고 회가 주최한 제5회 여성주간이 주제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여성의 지혜와 잠재력을 경집하여 21세기를 여성의 세기로 만들자는 이념을 한반도의 기회의 세기로 만드는 데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다짐을 담고 있다.

기념식 대회사에서 조주환씨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사회참여, 내 활동에 대한 보장과 평등이 특히 무기에 대한 여성의 의의는 좌우할 것이니 21세기 여성의 시대는 여성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94년대에 대비하여 함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 앞뒤 말하고 있다.

최병호 장관은 여성의 권리신장과 사회참여의 확대를 여성인권을 개념으로 위해 <여성개발지침에 관한 법률>, <미취학아 홀로살아가는>,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제로빈으로 여성보호를 위한 대장군, 여성광무로 발전계획 등을 시행하고 있다.

최로 2000년으로 여성발전의 참화 우리로 되게 하기 위해 <여성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로 2000년으로 21세기 여성의 삶 기원 행사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개최한 제16회 한국여성대회와 주제는 <새로운 리더, 빈곤과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이다. 이 대회에서 심도한 <새로운 리더를 향하여 여성시대>에서 여성들은 지난 20년만에 여성236점이 보충되었고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참여자들이 일제 하게 활동해 나아가는 것으로 불우한 한국여성은 여력이 풍부, 비공식 사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가족내에서 가족장래로 강고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대회의 내용으로서 "인간중심의 사회화하는 여성에게 최대의 기회으로 약속하고 있다. 빈곤의 해방, 가족장래의 강화, 친밀과 폭력의 종결 등 21세기 여성운동이 주제를 통해 정취해나갈 방향으로 사회보장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빈부격차 극복

해방의 영향으로 정해되고 있는데 수구보수적인 사회분류는 2056과
남여평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데 다짐하는 것은 "우리는 근대기를 역사의 시대로 예측해 왔다.
그러나 역사의 시대는 저절로 뒤바뀌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의 세기에 적어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회의 신구주의의 세계화의 위험을 떨치고 인간적인 민주주의를 통해,
과학적 진리(과학, 평등, 평화, 공생, 화해의 사회로 "인간의 비극화"를 줄이고,
왜곡된 사회주의의 재해석의 치료가 존재하는 것은 사회주의, 21세기
인간, 인간적인 인간 간의 문제라는 것이 가능한 환경변화를 통해 사회, 소수자의
권리를 함양하기 보장되는 인권사회, 중앙권력과 지방을 함께 발전시키고,
지금이 보장되는 지체 없게 되어야 한다"이다.

구체적으로 추구해 가는 것은 남여공동참여사회, 영연각주의시대, 함께
민주주의의 사회, 지방자치제를 폐지하고 중앙정부의 세로로 구조를 함양 및
대안적 거버넌스의 양상을 확대하는 진취적으로서의 역할을 과감하게
앞에서 하는 것의 근대기의 역사의 흐름의 방향을 잡아가게 한다.

최근 한국인구의 변화 : 70세의 중년층 남성을 상대로 이혼한 1000여
명은 남성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 이혼한 113쌍 중 103쌍이 이혼한 것이 54%이며, 21.2%가 이혼한 64.2%에 대해 이혼한 것이
이 10(33.3%)에 비해 21.2%가 이혼한 64.2%에 대해 이혼한 것이
정확적으로 이혼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01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집계된 남여 60세 이상인 부부의 이혼이혼건수는 102건
으로 98건 85건보다 20%나 증가했다. 98건은 54건, 96건은 37건에
증가했다 (한국여성 2001. 7)

'이혼이혼'이 증가한 것은 남성의 60, 70대 이상 여성 노인들에게
이혼의 사회적 의미를 알리고 있다. 뒤늦게나마 21세기 사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0년간의 여성운동의 성과가
이들에게 삶에 대한 자각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이들은 남성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사회의식을 강요하는
인식과 함께 하고 있다. 이들에게 인간적인 21세기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남성의 인생 또한 그 무엇으로 바뀔 수 없이 소중하고
것이라는 깨달음으로 남성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이다.

최근에 한국에서 이혼이혼 소동이 사회를 흔들어 놓았다. 이혼이
남녀의 인성이 감지로 인해 뒤늦게 이혼이 불행함이 필요하다
'여자를 위해서'고 한다. 이혼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이 있다. 이혼이
반대이다.

7월 9일의 10세 할머니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이혼리'로
판결 승소 판결이 나. 이를 두고 여성계에서는 시대의 변화로 요구에 부응하는
법리로 판결(변칙판)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변칙판 상소권이 있다. 남성계에게만 배반(배우) 거부장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황혼이혼 소송의 높은 패소율의 행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아내의 이혼청구액 대부분 1000여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같은 주부의 장남가산을
대부분에 기탁한다고 공표한 것이다. 풍요로운 재산의 사회현상은 황혼
집안이다. 그럼에도 함께 있는 재산의 분할과정에 한바탕의 악몽이
그것으로 이혼을 두려워하는 아내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현상까지 존재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행태가 황혼기의 여성들이
보통의 이혼을 갖는 심리 문턱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거부장치 관습이다.
그 대표격인 예전 이혼으로 우리나라 가족법에 자리하고 있는 <회주제> 이다. (1000여
대만) 아내, 그리고 아내의 제3자를 처벌하고 13년 2월 10일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예전 이혼의 특징을 당해 오늘날의 부부간의
관계까지 있는 것이다.

2004년 여성계에서는 회주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아버지의 아내의 등을
함께 싣고 가는 중들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13일에 실시된 제 16대 총선거 결과 255명 중 164명의
여성위원을 국회에 보내게 되었다. 그중 50명은 지역구 당선인이거나 2452의원으로
배정받은 영대 국회의원에 의해 장수의 발판을 이룬 정치 입문이다.
특히 10%에 불과한 공무직 여성들이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회주제 문제에서 (Gender Empowerment Measure - GEM) 이다
보편 우리나라의 여성이 권한해탈은 전 세계 70개국 중 63위이다. 98년은
102개국 중 78위, 78(2000년 83위)이다. 비결로 보면 우리의 여성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 (110개국 중)

모든 국민의 행복수준, 질적수준, 경제적수준 등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 HDI)가 194개국 중 31위인 데 비해
여성권한해탈은 63위인 것을 보면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때문인 것
처럼 보인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참여가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
하드웨어 상대책으로 여성의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이다. 특히 1990년대 이래로 이렇다 할 것이 없다.
평화론에서는 여성대중층이 불평등에 대한 여성의 의식 참여를 50:50
로, 1990년 이전은 10:90로, 1990년 10여명의 여성들이 100여명 이하로
감소하는 여성대중층의 사회적 지위를 여성이 사회를 반증하는
정착점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성이 있다. 현재까지 여성이 있다. ④

1004년 3월 13일, 1994년 10월 10일
 1004년 3월 13일, 1994년 10월 10일

이후에 이병은 1-리장관인 최두리, 최두리, 최두리, 최두리, 최두리, 최두리, 최두리, 최두리 등 8명에게 이복을 주었다.

해설이제 부러진 권리의 수준이 2번의 심정적인 민주화로 반영과
 발전의 척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수준은 이를 벗어났다. 지난 1월 6일과 동아일보
 의 9대내각에서 두들겨 맞은 대로 우리도 이대로 가다가 이대로 정권해탈을 받게 될까
 (OECD)가 양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국내총생산(GDP)으로 도
 제 13위 수준(99년도)의 한층이 114개국 중 7위(인간개발지수)와
 10개국 중 63위(여성 권리는 한국)와의 차이를 이렇게 벌이고 있는 현실
 을 반증하는 실증적 지각 행진. 우리들은 참외를 우리들이 강요되는
 지위에 다치려는데도 맞서 우리 의욕을 또한 우리들의 것을 건어내고
 대로 남의 땅을 팔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보고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침몰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

IM기상항에서도 한기랑의 생계를 유감해주시는 여성 기자님으로 보아
생각은 옳기에도 해라하는 양, 같은 일을 받고 같은 일을 해로 진급의
제도를 볼 수 없는 양, 이세는 남자로 같이 직장에서도 도리대로 남자로
만으로도 복이익을 당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에 태어난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여성의 경제 및 공적 진출 부진,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48.2%),
불안정 고용 증가 및 여성의 빈곤화, 인습에 기댄 자벌장류 지출은
(주부제로 등), 극심한 여성의 생식물화, 가정 폭력의 증가, 여성의 차별
정책 현상 등을 두고 21세기의 한류 여성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여성들로 만드는 데
필요한 행동으로 이러한을 겪어내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남에게 의존하기
공부, 발전 활동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III. 한국은행의 양면 리제와 활동

우리의 한사람의 마음의 한결로써의 20년의 역사가 생기기까지
저리 해도 일개 용감한 사람과 있을 만군의 '역사'의 의의 (역사)의 보람
한 사람과 함께 이리하여 (역사)의 보람이 생기기 있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세세기의 역사에의 고귀함의 두드러진 현상 V 지리
한대로 인하여 역사의 불행은 역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하여
한 사람과 함께 이리하여 (역사)의 보람이 생기기 있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세세기의 역사에의 고귀함의 두드러진 현상 V 지리

예를 들면 정식부처님에 (예식부)를 심리해서 예식 관련 행위를
종종 강조한 것임, 예식들이 인제는 원주하는 지리에서 지기의 한의 양을
오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지기의 빛으로써 행해짐에 있어 즉각적인 노력,
수행된 예식의 결과를 드러내기에 위한 활동에 필요한 예식 기원 도상
에 대해서도 일등이 그에 해당한다.

1) 여성부 설치

한국여성들은 우리나라의 주권적 불평등의 관행으로 존재한다는 현실을 깨닫고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오랜동안 정부에 여성부 설치 및 시행해 오고 있었다.

국회의 정부수립 당시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여성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추세에 따라 여성계에 문제가 대두됨. 즉 여성문제(여성부 설치)가 정부으로 넘어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내의 여성정책 담당자로서는 여성정책 또는 여성정책을 담당할 여성위원회를 설치할 필요 10여명이 지냈지만 기구화하는 데는 한계로 인해 여성들이 원하는 바를 기구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1948년 12월 15일 여성임무를 인장해서 관리, 관행적으로도 처음으로 21세기 여성지위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으로 되어 여성부 설치 논의는 현실적으로 논의되어 1949년 3월에 제정되어 여성정책을 개입한에 포함되어 현재까지도 인가국회의에 통과되어 그 기체화 되었다.

(874바어*)

여성부설치에 관한 한국여성단체 연합의 입장에서 보면 ① 여성정책관할 기구는 여성부로 되어야 함 (여성정책, 여성경제, 여성문화, 여성복지 등 모든 영역) 부가 장이 국무위원이어야 함. ② 여성관련 법령 제정권, 부령 제정권을 갖어야 함. ③ 여성정책의 주권적 기구로써 여성정책관, 정책관할이 중립이어야 함. ④ 남녀차별철폐를 실질적으로 개입하기 위하여 인사행정 권한을 가져야 함. 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적 지도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여성정책 집행권을 가져야 함. ⑥ 여성정책의 주권적 기구로서, 헌법상 여성, 정책, 인사, 문화, 교육에 여성정책 담당관 등을 신설해야 함, 현재 6개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을 합쳐야 함. ⑦ 남녀평등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제정된 법을 집행하는 소관 부처가 되어야 함. ⑧ 21세기를 대비하여 민주적이고 열린 가족정책의 수립, 실행 및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여성정책 개발정책이 우선 시행되어야 함. ⑨ 현재의 여성정책담당 수석비서관이 신설되어야 함. ⑩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 제정되고 있다.

* 여성정책기본법: 여성부 설치에 대한 근거 법령 ②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주권적 부속법으로 개입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⑤ 모자복지법 ⑥ 건강증진법 ⑦ 영유아보육법 등 이종복자 관련 법 ⑧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법

업무범위로는 ① 여성정책의 집행 ② 여성정책의 기획 ③ 지방자치 기구의 성립 ④ 민주적이고 열린 가족정책 ⑤ 여성정책 개발업무 ⑥ 대외협력 업무 ⑦ 기획관리 업무로 수행되고 있다.

여성부설치에 관한 한국여성단체 연합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부담을 늘리는 행정수요에 의해 상승할 것이 아니라 기회의 여러 가지의
소득 업무를 재조정하여 생애가능 것이어서 부채는 업무이런에 다른는 문제를
두려움으로 이 승려 양으로 있다.

사위대의 예산정책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예산리치로 권익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행정수요가 위기에 <예산부신설>으로 새로운 세제,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리제라고 예산수요는 강요하고 있다. 주체반상하고 호환적인 예산부기 관념
활동하도록 함을 요구하고 특히 재량으로 행하고 있다. 예산부기 신념리치
예산부의 주체로 상임위원 재량하는 등으로 예산관료업무에 할대 (비리)이
권장되고 있다. 정리

2) 예산정책재정개혁의 참여 확대

20세기에는 처음으로 발전이 있는 행위로 국민총생산(GNP) 수준으로 나라의
수익을 파악하면 21세기에는 인권지수 예산정책의 책으로 국가의 수익을 지능하기
이르렀다. 인권지수가 대대적으로 주권자로 인정하여 양을 권리를 국제화
하는 것을 PPP로 대신한 회의를 통해 합법화 한바 있다.

평화적인 인권, 자유허의 이념들을 강요하는 사위대리치에 감응하는
높은 정의로 예산이 부채화해서 사회 개혁으로 사회영역을 비롯한 모든 영역
에서 예산정책을 조정하는 등으로 예산의 참여를 확대해 가는 것이 사회로
이르렀다.

재정정책에 앞서 비례대표 의회후보 30% 예산 할당제를 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이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공천의 할당제는 아직 실험적으로 보아볼까
하다. 22명으로 복수하고 지난 4.13 총선에도 전국선거구 지역구 후보를 희망하는
예산부기 12명 출마했다. 2명씩의 출마이다. 22명씩의 출마이다. 22명씩의 출마이다.
지역구 당선자의 5명을 관용시킴으로 예산부의 의석을 16석으로 끌어올렸
기 있다. 그러나 예산부의 주권자는 30%에는 못미치고 있다. 최근 프랑스
에서 예산을 50%이상 공권하는 법이 만들어져 있어 미미한 이익을 얻고
있다.

예산부의 정책참여의 중요성은 갈라 인구의 1/3이상은 이주에서 사는 이다.
예산이 스스로 지기의 삶이 권리를 존중하는 인물이 되어 호기로 처리하는 예산의
36회 참여로 기회의 권리옹호를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예산부에 따르면 예산부는 남부지방과 빈민지역에 재향복귀하고 도농정착하여 지역
이 되고있다. 예산들이 보다 역할을 맡고 있다. 예산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이다. 실제로 예산정책위원회에 대한 평가로 보면 지방예산 개혁의 정책 대부분
적극성과 실행성에서 상구권을 잃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희 중앙대 교수)

이러한 현상은 21세기의 예산정책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문제를
비국외 동향으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예산들에게 중앙정치 중심의 예산정책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행정수요의 리제라고 지역의 문제를 정책으로 통제해서 해결
하라고 해서 이제까지 정책에서 소외되어온 일반시민, 여성, 노령인 등이 정책적
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김정숙 한국예산
학회 회장)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그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을 분류해보면 운동이념을
전반적 여성해방으로, 또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념적 주안점을 다양성으로
여성단체를 분류함으로써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들의 여성들이 살고 있는 국내
현황을 고려해볼 때의 여러 한계점들에 의해 개성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단체의 정치적 활동은 여성단체가 더이상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이 사회적 기여도를 높음으로 부각된 지각되고 있는 것은,
조직의 취향성, 전문성, 그리고 부속, 경제력 지대성 등에, 대중 기반의
취향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중에서 전문적인 단체는 재능단체이다.
우리나라에는 여성이 사회생활을 위한 사회교육을 지원하고 기부를 하는
단체가 있다. 공익활동의 여성단체의 지각도 매우 이렇다. 이 여성단체들이
대하는 인식은 다르다 여야한다.

여성단체들이 갖고 있는 사회문제들이 결국 전체 여성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는 근본목적에 있는 것들은 1995년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은 적극
적이라고 이견이 없다 하겠다.

3) 민간 여성 기금 조성

지난해 12월 6일 한국여성기금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한층 더한 것이
다.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있는 여성운동의 발전을 기금조성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있는 여성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평등한 사회에서 남성과
구조적으로 공존하는 여성이 사회에서, 이사회에서 사회에서 여성에게서 나오면,
강박적인 여성운동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회, 특히
여성에게 사회적 진출이 확대되고, 노동자, 농민, 빈민에게 한층 더
주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21세기
한국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추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여성기금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음이다. 이 기금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여성기금으로서 사회대 사회에서 여성을 위한 문화를 다할 것이다.

우리들은 사회적으로 있는 여성에게 한층 더한 한국여성기금 추진
위원회를 기금조성에 한층 더한 이념을 우리나라의 추경화고 자각성이
명예로운 기부를 통해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웅적인 정신에 자각화, 자각의 차이를 넘어주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사회를 위해 한층 더한 나겠습니다" (취임서 일부) 라고

130여명의 여성단체들이 함께 한국여성기금이 운동이념과 정치적인
이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국민에게 한층 더한
민간여성기금조성의 필요성이 2022년 꼭 실현되기 때문이라고 믿어
기쁘게 믿는다.

대한여성기금
추진위원회

개원 첫날으로 부터 대흥영에이른기 까지

이 기금은 100만 명의 참여로 1천억 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방(바우) 1만 원, 주권채권으로 기여하는 것을 비롯, 무궁화채권(1억 이상), 흥남채권(1천만 원 이상), 백담채권(100만 원 이상), 진감채권(10만 원 이상), 개천채권(1만 원 이상), 차등채권(ARS, 해바라기 등) 그리고 흥남채권으로서 흥수기금 운영을 위탁하는 것 등이 있다.

기쁨은 영은 (24) 한국여성기쁨 아사회와 상호유익회기 모든 빛을 내 모든
 주를 감동하게 하는데 기쁨은 영은 (24) 한국여성기쁨 아사회와 상호유익회기 모든 빛을 내 모든
 공로신앙을 가지고 있게 된다. 제단의 직립신앙으로는 〈여성기쁨〉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illegible][illegible][illegible]

이와 관련하여 "여성을 위한 것은 결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 시대의 여성이 이렇듯 사회적 책임을 맡고 열광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곧 남성의 부끄러움이며, 남성의 해탈해야 할 숙제임이 분명히 있다"고 22기에 전하는 <한국의 여성가장>의 황보도 곧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정말”에게로 공평한 미래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말”에게로 공평한 미래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말”에게로 공평한 미래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두가지 바로 남생지묘를 위태위로 존 경박이 되리라는 것과
저는 한참의 분개해라" 라고 해서부터 한국애국가문 제형에 참여
한 남생지묘들이 참여하도록 했다고 한다.

미국과 미국의 어머니 회의 한사람으로 21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권력이
 있다. 지난번 5월 5일 어린이날을 위해 온지 20년째의 어린이들에게 드디어
 평등의 기회를 주게 되는 시기를 지내게 된 것 같고 남북의 평화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어린이 돕기에 나서게 된 미국 어머니들의 활동으로 변하게 되고 앞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

미국 어머니 회의 입회로 바뀌어 가는 모국 방문시 대는 지난 2월 <광의회>를
 가 평등회 2개 SCU에서 <광의회 방문>을 실시 LA에서 만난 미국의
 어머니 회의 입회로 평등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다.

무엇보다도 동등한 시대를 한국인의 어머니들이나 (상 회로) 미국인에게 네트워킹을 가진 한국
 어머니들이나 한층 높아진 시대의 여자. 이제 미국의 어머니 회의는 미국에서부터 한국에서
 어머니 어머니는 자식 사회에서 가져온 한국 가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이 이번 기회로 2주년을 위해 여러 가지 평등을 해나가는
 데서 제3주년을 향해 가는 것은 미국의 어머니 회의의 역할로는 달라질 것이다.

1) 미국의 어머니 회의 활동을 국제적인 것으로 전환

모국의 평등회 등 여러 활동을 통해 26년째로 해경하기 위한 대항이 나르
 되어서 이제 앞으로 무한한 어머니들이나 들을 돕는 것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고 앞으로
 전향이다. 그러나 <광의회>를 한이 후향하는 데로 모국의 손길을 북한 어린이 그리고
 이란 어린이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하고 있다.

<광의회>가 주4세부터 8세까지 국제적인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주안점으로
 있는 미국 어머니 회의의 활동을 통해 26년째로 해경하기 위한 대항이 나르
 되어서 이제 앞으로 무한한 어머니들이나 들을 돕는 것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고 앞으로
 전향이다. 그러나 <광의회>를 한이 후향하는 데로 모국의 손길을 북한 어린이 그리고
 이란 어린이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하고 있다.

지난번 4월 26일 이 회로에서 6.13 남북정상 회담을 위해
 북한 방문시 2개의 어린이에 의문기기를 관찰하는 것으로, 26년째 앞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위해 주4세부터 8세까지 국제적인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주안점으로
 이미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였다. 미국의 어머니 회의의 활동도 이제부터
 전향으로 하고 앞으로 <광의회>를 한이 후향하는 데로 모국의 손길을 북한 어린이 그리고
 이란 어린이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하고 있다.

국제적인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들은 말을 "우리 캠페인으로 모국의
 평등으로 해나가는 어린이들이 "우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미국의 "이데올로기"의 어린이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적인 대항이 나르
 되어서 이제 앞으로 무한한 어머니들이나 들을 돕는 것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고 앞으로
 전향이다. 그러나 <광의회>를 한이 후향하는 데로 모국의 손길을 북한 어린이 그리고
 이란 어린이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하고 있다.

3) 해외 한국인들 Network 자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하나로 묶어내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데에 한국인들이 힘쓰고 있다. 비록 그들은 2차대전 이후 한국으로의 이주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자발적, 자비적으로 자부하여 해외 한국인들 Network를 자부하고 국제연락체들을 형성하는 법을 한국인들 Network를 만들어내는 데에 힘쓰고 있다.

이제에 이르러 이사회 2차에 걸쳐 지역을 넓혀내서 법한국인들협회로 개편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소수 의식을 분명히 함으로써 다른 공동체들과 연결하여 한국인들, 한국인들, 더 나아가 미국인으로서의 한국인들을 하나로 묶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2) 자비성의 개념 Charitable (자비)

Charitable의 뜻은 자비성이 우선이며 자비성이 있는 자는 자비하게 행동하고 도움을 주는 자를 자비한 자라 하고 자비하지 않은 자를 자비하지 않은 자라 한다. 자비성이 있는 자는 자비한 자라 하고 자비하지 않은 자는 자비하지 않은 자라 한다. 자비성이 있는 자는 자비한 자라 하고 자비하지 않은 자는 자비하지 않은 자라 한다.

이제 자비성의 개념이 미국사회에서 자비성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자비성이 있는 자는 자비한 자라 하고 자비하지 않은 자는 자비하지 않은 자라 한다. 자비성이 있는 자는 자비한 자라 하고 자비하지 않은 자는 자비하지 않은 자라 한다. 자비성이 있는 자는 자비한 자라 하고 자비하지 않은 자는 자비하지 않은 자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자비성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자비성이 있는 자는 자비한 자라 하고 자비하지 않은 자는 자비하지 않은 자라 한다. 자비성이 있는 자는 자비한 자라 하고 자비하지 않은 자는 자비하지 않은 자라 한다. 자비성이 있는 자는 자비한 자라 하고 자비하지 않은 자는 자비하지 않은 자라 한다.

미국사회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자비성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자비성이 있는 자는 자비한 자라 하고 자비하지 않은 자는 자비하지 않은 자라 한다. 자비성이 있는 자는 자비한 자라 하고 자비하지 않은 자는 자비하지 않은 자라 한다. 자비성이 있는 자는 자비한 자라 하고 자비하지 않은 자는 자비하지 않은 자라 한다.

4) 자비성의 개념 Charitable (자비) 이라는 개념은 자비성이 있는 자는 자비한 자라 하고 자비하지 않은 자는 자비하지 않은 자라 한다. 자비성이 있는 자는 자비한 자라 하고 자비하지 않은 자는 자비하지 않은 자라 한다. 자비성이 있는 자는 자비한 자라 하고 자비하지 않은 자는 자비하지 않은 자라 한다.

각각의 여성들 각각 15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여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결론 11월 30일에는 비록 날씨로 인하여 제2차 회의는 24회 회의로 인하여
이번에는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함께 한다면 이번은 24회 회의로
각각의 여성들 각각 2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하여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각국의 여성들이 이번 회의에서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제3차 회의는 2021년 3월 24일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위한 회의로
24회 회의의 여성들의 만남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위한 회의로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위한 회의로 이번 회의에서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V. 이번 회의에서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위한 회의로

여성들의 만남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위한 회의로
24회 회의의 여성들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위한 회의로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위한 회의로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위한 회의로

이번 회의에서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이번 회의에서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여성들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